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꽃도 예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옹비어전가 2장에 나오는 글이다. 꽃이 예쁘고 열매가 많이 열리려면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냇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먼 여정을 가려면 샘이 깊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지만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유교(Confucianism)의 핵심 가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s)’이다. 가장 이 화목하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해지고, 내면에 충실하면 외면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 유교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기본이 무너지고 말단이 횡행하는 시대, 우선이 생략되고 결과만 중시되는 세대, 초심을 잃고 결론에 묶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음, 근본,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대형 로펌 출신 현직 변호사가 부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본말(本末)과 시종(始終), 그리고 선후(先後)

내 던진 비정한 엄마에 대한 최근 뉴스를 보며 기본이 무너지는 시대를 한탄하게 된다. 법률 지식 공부를 하기 전에 배려와 존중의 기본을 배워야 했고, 엄마가 되기 전에 자식 사랑의 기본을 익혀야 했다. 기본과 근본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어떤 지식과 자격도 의미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과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인성과 인격의 근본은 여전히 의문이고, 기업의 가치와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기여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뿌리가 약하고, 샘이 얕으면 가뭄 바람에 열매는 떨어지고, 짧은 가뭄에 물은 금방 말라버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풍요로움이 위태롭다면 기본을 건너 뛰고, 초심을 잃고,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결과가 아닌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예쁜 미소와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 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꾸며낸 허상일 뿐이다. 그림(繪畵)을 그리려면 하얀(素) 도화지를 준비해야 하듯이,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기본(忠·誠)이 충실해야 한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문학 수업을 하면서 한 말이다. 학력과 지위는 갖췄지만, 내면의 인성은 바닥인 사람,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껍데기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기업,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지만 내심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 국가의 부는 선진국 반열에 들

다고 하지만 존중과 배려의 기본이 허약한 사회는 그야말로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가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상들이다.

근본(本)이 제대로 서면(立) 새로운 길(道)이 열린다(生)고 한다. 물건이 안 팔린다고 고민하기 전에 품질을 먼저 고민하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고민하기 전에 유권자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기본이 튼튼하고, 본질이 아름답고, 내면이 충실하면 지지와 존경과 칭찬은 저절로 오게 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돌아봐야 할 이유다.

‘대학’(大學)에 일의 시작과 끝, 사물의 본말, 일의 선후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物有本末·물유본말)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事有終始·사유종시). 무엇이 우선인지를 안다면(知所先後·지소선후) 도에 가까울 것이다(則近道矣·즉근도이).’

정치는 민생이 근본이고 당쟁은 말단이다.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지식은 다음이다. 가정은 화목이 처음이고 부귀는 나중이다. 인생은 행복이 우선이고 출세는 나중이다. 근본이 혼란한데(本亂·본란) 말단이 제대로 되는 경우(未治말치)는 없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본말(本末), 시종(始終), 선후(先後)가 제대로 내 인생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종교칼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많은 노력을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어 내면에서 작용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회와 상황과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일하고 더 공부하고 더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과 학습과 분주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현실인지 아니면,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며 실현해 가려는 존재의 당연함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삶을 위한 노력이 맞거나 틀리거나 옳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 ‘나’라는 존재인 다른 사람이 배제되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상호적 관계이지 일방적이고 적대적 관계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차별과 자연 파괴와 생명 경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상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는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결말이고, 어느 한 쪽은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싶다. 나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얻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삶을 영위하면서 있어야 할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외적으로 충분하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혹자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삶이 팽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 존재인 우리는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나’로 시작하면서 ‘너’라는 다른 사람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역시 상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너’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사랑·나눔·봉사·희생이라는 단어를 내 자신에게 이입해보면,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온전히 내어놓는 사랑·나눔·봉사·희생은 타인을 향하지 않고 박탈당하는 모습이지만, 역설적으로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 내 소중

한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을 때 행복과 만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처럼 말이다. 경쟁과 투쟁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월감과 교만함이 극을 향하는 이들에게 사랑·나눔·봉사·희생은 한낱 쓸데 없는 일이며 시간 낭비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나눔·봉사·희생을 실천하는데 굶뜨고 미적거리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니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오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은 무심한 권력에 의해 정자가 무참히 짓밟혔고 선과 윤리의 질서는 새로운 절대로 등장한 돈이라는 ‘맘몬’(mammon)으로 무너져내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차별받으며 자연 파괴처럼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사랑·나눔·봉사·희생은 ‘너’라는 타자를 향한 ‘나’의 실천이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올 한 해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기고

야구장과 ‘목포의 눈물’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에 무슨 음악을 좋아하느냐 물으니 노래 제목을 든다. 왜 하필이면 그 노래냐 다시 물으니 가사의 어느 대목이 그렇게 가슴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 좋아하는 클래식이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고개를 돌린다.

그 사람은 ‘가사’를 음악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사는 음악이 아니라 시다. 그래서 가사 있는 음악은 뮤직(Music) 중에서도 따로 ‘노래(Song)’라고 한다. 노래는 인생사 애환을 담고 있지만 그건 가사의 몫이고 순수 기악 음악은 그걸 담지 못한다. 좋은 ‘노래’는 그 가슴 깊은 인생사 애환이 순수 음악의 생명력과 맞아떨어질 때 더 빛을 발하기도 한다.

어느 시절이던가 야구장에서 이난영의 ‘목포의 눈

물’이 함성으로 울려 퍼질 때가 있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야구장 밤하늘을 찌를 듯 목소리 높여 부르던 목포의 눈물을 들으며 야구장에 웬 뜬금 없는 눈물이나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왜 하필 ‘목포의 눈물’이었을까.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졌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눈물”

정말 야구장 노래로 뜬금없긴 하다. 부두의 가녀린 새악시가 에타게 님을 그리는 안타까운 노래인데 그 왜 하필이면 야구장에서 함성으로 터지냐는 것이다.

1980년대 차별과 홀대로 설움받던 호남의 연대감이 야구장에서 노래로 분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다. 허기야 당시 해대 야구가 호남의 분통을 속 시원히 풀어주며 통쾌함을 전달하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눈물’이냐는 것이다. 흥겨운 ‘진도 아리랑’도 있고, 강강수월래도 있는데 말이다.

거기에 음악의 비밀이 있다. 음악은 첫 음, 첫 톤기로 시작되자마자 음악이라는 생명의 싹이 터 오른다. 그 생명은 ‘긴장과 이완’이라는 수많은 굴곡의 드라마를 거치면서 결국 거대한 절정, 클라이맥스로 생명을 완

성한다. 그래서 절정과 클라이맥스가 없는 음악은 명곡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음악은 성장하는 생명체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에너지가 동력의 원천이다. 긴장과 이완의 굴곡을 거쳐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해 내고자하는 에너지의 결집 과정, 무언가 분출과 융틀임으로 한바탕 효호를 터뜨리고야 말 것을 암시하면서 준비·압축해가는 에너지의 결집 과정, 그것이 곧 음악의 생명인 것이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는 그것이 들어 있다. ‘사공의 뱃노래’하며 슬슬 노젓듯 노래는 시작하지만 ‘삼학도 파도 깊이’에서 한바탕 융합이 분출하듯 에너지의 절정을 노래하더니 ‘이별의 눈물이나’하고 한번 더 한을 토해내고 결국은 이완의 종점에 이른다.

엷치락 뒤치락 야구의 스킵어는 ‘긴장과 이완’으로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더니 7회말, 8회말이 되고 9회말이 되면서 ‘목포의 눈물’은 터지고야 만다. 이때 목포의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절정’ 그 자체이고, 9회말 홈런은 그렇게 절정의 맛이 되고 한번의 드라마가 완성이 된다.

이것이 곧 음악의 생명이고 음악의 드라마이며, 우리 인생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社說

전남도 중동 세일즈 외교... 성과로 이어지길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동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부터 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28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활동과 전남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광폭 행보를 했다.

두바이에선 COP33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전남도의 탄소중립 의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역설했다.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과 경남지역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이 COP33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리야드에선 전남 에너지 기업과 사우디 기업들이 참여한 ‘KOR-KSA 에너지워크’ 행사를 열고 전남 에너지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의 사우디에서의 세일즈 외교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지방 도시간 교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로 한 ‘한-사우디 공동성

명’ 채택이후 국내 지자체가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로서 의미가 남달랐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는데 이 분야는 전남이 국내에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 전남에는 국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해 있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솔라시더라는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우디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스마트 생태도시로 추진하는 ‘내움시티’ 건설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의 독자적인 중동 세일즈 외교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전남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중동 기업들의 전남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이 중동 시장 핫 라인 개척이라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악성 민원’에 잦은 공사 차질... 강경 대응해야

광주 화정아이파크(이하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과도한 민원으로 아파트 철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붕괴사고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아이파크 현장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철거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및 재시공 현장 인근에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협의회 등의 명의로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20여개가 게시됐다.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이 소송, 비산먼지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반복·악성 민원으로 안전한 공사를 방해한다’ ‘공사가 하루만 지연돼도 피가 마른다’는 등 문구가 적혔다. 또한 ‘악성 민원에 전

전공금하는 서구는 각성하라’, ‘서구는 강력한 대응으로 악성 민원을 근절시켜달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서구청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최근 아이파크 인근의 광주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도 무리한 민원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철거 현장의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행 안전을 위한 복지관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의 악성 민원으로 아파트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안일 말이다. 공사가 미뤄지면 제때 입주를 못한 입주자와 주변 상인 등이 겪는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아이파크 일대는 서구의 타 현장에 비해서 과도한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따라서 서구청은 공식사회가 위축되거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민원 황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브로커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거래를 대신하거나 연결해주고 이익(수수료)을 얻는 사람, 즉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을 일컫는다. 두번 째 의미로는 사기성이 짙은 거간꾼으로 사용된다. 현재는 중개인이라는 상업적 의미는 거의 희석되고,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를 연결해주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브로커, 병역 브로커 등과 같이 듣기만 해도 불법 행위가 연상되는 의미로 다가온다.

한반도 분단 상황으로 인해 탈북과 대북 송금 등 중개인이 생겨났는데, 바로 송금 브로커와 탈북 브로커이다.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 북한 이탈 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가족에게 연평균 367만 원을 송금하고 있는데 돈을 보낼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송금액의 절반(48%) 가까이 차지했다. 즉 송금 브로커가 송금액 367만 원을 받아 절반 가량인 18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만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형에 익숙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선족들이 탈북 브로커로 활동한다고 한다. 탈북 브로커 비용은 2000년대에는 1인당 500만 원 안팎이었지만 2020년 이후, 북한의 경제와 중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2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다. 코로나 봉쇄 시기에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다.

국내에선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라는 윤상림 사건이 터졌는데 판

브로커

사, 변호사, 경찰 수뇌부 등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잊혀진 듯 했었는데, 바로 송금 브로커와 탈북 브로커이다.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 북한 이탈 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가족에게 연평균 367만 원을 송금하고 있는데 돈을 보낼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송금액의 절반(48%) 가까이 차지했다. 즉 송금 브로커가 송금액 367만 원을 받아 절반 가량인 18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만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편집국내, 정·치·경·사·사회, 전·남·본·부